

광주 군공항 이전 최적지 '무안 망운·운남면 해안'

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토론회

무안공항 활주로서 1.9km 떨어져 소음 영향권 3개면... 광주의 절반 '3조+1조' 투입... 지역발전안 제시
姜시장 "광주·전남 전체 위한 길"

광주 군공항 이전의 최적지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서 1.9km 떨어진 무안군 망운과 운남면의 해안지대라는 점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또 군공항 소음 영향권은 망운·운남면에 현경면까지 더해 총 3개면, 무안군 전체 면적의 4.2%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광주시, 전남도, 양 시·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주최하고 광주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주관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 무안군 초당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합 입지를 비롯해 소음 영향권 및 지원 방안, 지역 개발 및 지원 규모 등이 공개되면서 지지부진했던 광주 군공항 이전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양철수 광주연구원 매력도시연구실장의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시 소음대책 및 지원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공개된 △군 공항 입지 선정 및 시설배치 계획안 △광주 군 공항 소음영향과 비교해 도출한 소음영향에 대한 분석이 관심을 모았다.

광주연구원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시한 예비 이전 후보지의 군사작전 적합성과 공항 입지 적합성 등을 선정요건으로 분석한 결과, 기존 민간공항 활주로의 평행 이격거리, 북쪽 끝단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3가지안을 도출했다.

평행이격 거리와 북쪽 끝단 이격거리는 1·2·3안 각각 880m·400m, 1311m·200m, 1900m·0m로, 3안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3안은 민간공항 활주

로에서 1.9km 떨어진 지점으로 현 활주로와 북쪽 끝단 위치가 같다.

양 연구실장은 "민간 활주와 독립 평행 활주로 최소 간격을 1.31km로 규정한 미국연방항공청(FAA) 시설 기준에도 들어맞고 해안매립을 최소화해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3안이 도출됐다"며 "특히 서쪽 해안 위주의 장주비행이 가능해 소음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광주 군공항의 소음 영향에 따라 무안공항 이전시 85웨이블이 넘는 소음 영향권에 해당하는 지역을 운남면(12.3km²), 망운면(5.8km²), 현경면(0.9km²)으로 파악했다. 총 19km²로, 무안군 전체 면적인 450.4km²의 4.2%에 해당, 이곳엔 1만여명의 주민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 군공항 소음 영향권인 40.21km²의 절반 수준으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광주군공항(8.2km²)보다 1.4배 넓은 군공항 △소음 완충지역 5.7km²에 해당하는 토지를 추가 확보 △오후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투비행기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신동훈 전남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시 주변 지역 발전 구상 계획'을 주제로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서남권 발전방향을 6개 분야, 21개 세부사업으로 제안했다.

국비 1조983억원, 도비 8409억원, 군비 5083억원, 민자 5601억원 등 총 3조 7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 육성 △에너지·반도체·데이터 등 첨단산업 거점화 △인공지능(AI) 첨단 농업 융복합지구 조성 △글로벌 명품 관광도시 조성 △육·해·공 빈틈없는 광역 SOC 확충 △어디서나 살기 좋은 전남 1번 도시 무안 건설 등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총 1조원 규모 지역 개발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 2면에 계속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이 24일 무안 초당대학교에서 국방부, 전남도, 시·도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 시 소음대책 마련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디자인비엔날레, 10년 만에 비엔날레재단 주관

강기정 시장 "아트페어도 정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확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했던 디자인비엔날레가 10년만에 다시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주도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이탈리아 방문과 관련 "광주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페어 운영을 새롭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한 디자인비엔날레는 올해부터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준비하고 아트페어는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는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초기에는 비

엔날레재단이 주도했지만 2015년 6회 행사부터 지난해 10회까지 디자인진흥원이 감독을 선임하는 등 주도적으로 운영했다. 또 미술작품을 판매하는 광주아트페어는 지난 2010년 만들어졌으며 주관단체 공모 방식으로 지난해까지 행사를 치렀다.

강 시장은 "아트페어의 경우, 행사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의 주관단체 공모 운영방식을 벗어나 올해부터 문화재단이 운영하겠다"며 "디자인비엔날레와 아트페어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강 시장은 광주비엔날레 주요 행사 중 하나인 파빌리온의 확대와 상설관 설립계획도 전했다.

파빌리온은 해외 문화기관의 작가와 작품을 광주에서 선보이는 전시로 오는 9월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은 30여

개국이 참여한다.

강 시장은 "오는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는 30개의 국가가 참여하고 10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나머지 20개는 광주 곳곳에서 열리고 광주관을 특별히 만들어 '무등'이라는 주제로 열린다"면서 "비엔날레관이 건립되면 현재의 전시관은 파빌리온 상설관으로 바꾸겠다. 이번 비엔날레는 세계미술과 세계인들이 만나는 또 하나의 창구이고 문화 메신저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5월 민중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5·18민주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민중'이라는 단어는 전세계 고유명사인 만큼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마당극 등의 민중축제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했다.

▶ 관련기사 15면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全南日報가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전남해외상설판매장

동남아시아 ONE MART

유럽 Sunrise Supermarkt, K-Shop

미주 한남 Buena Park, 한남 LA, 한남 Torrance, 한남 Del Amo, 한남 New Jersey

호주 FREEZIUM MARKET, SEOUL MART

▶ 생명의 땅, 청정 전남에서 나고 자란 우수한 농수산물을 지구촌 곳곳에 알립니다.
▶ 골든힐은 수출에 관심 있는 전남소재 식품제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골든힐 전남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455-90 | T. 061.332.1998 F. 061.334.1997 | E. golden0311@naver.com